하늘에서 바라본 '불탑 만다라'

송석곤 사진전 '탑에서 탑을 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10.6~28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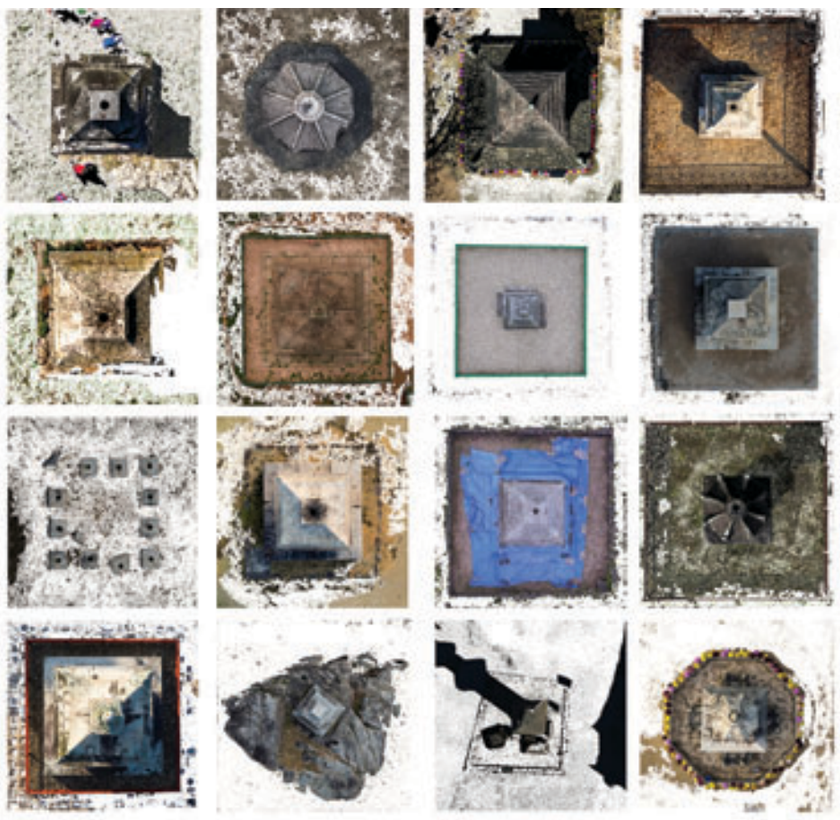
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사진전이 열린다. 통도사박물관은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작가 송석곤의 '탑에서 탑을 보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송 작가가 2000년 이후 전국의 사찰을 돌며 렌즈에 담은 탑 200여 점이 전시되는데, 그중에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탑 사진 108점이 포함되어 있다. 송 작가는 3년여 전부터 드론을 이용해 탑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진을 사진이 아닌 한지에 프린트하여 수 백년 동안 시공간을 초월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화한 탑의 모습을 회화적인 작업으로 완성했다.

이 땅에 서 있는 오래 된 '탑'의 대부분은 불탑(佛塔)이다. 오랜 세월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 탑들은 여러 면에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이다. 그 탑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어 왔지만 평소 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이유는 쉽지 않다. 불자인 송 작가는 2000년부터 이 땅의 탑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탑에 대한 생각이 일었고, 바라보고 싶어졌다.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것의 안을 보고 싶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안을 보고 싶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보고 싶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송 작가는 오랜 세월 탑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터인가 탑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싶어졌다. 하늘에서 탑을 본다면 어떤 모습이며, 그 모습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탑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들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송 작가는 자문하기 시작했고, 그 자문들이 지금까지 사진을 찍게 한 것이다.

오랜 세월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존재하는 탑들은 불심의 기운이 서려있는 구조물이다. 송 작가는 그런 영성의 시간들을 렌즈에 담고 싶었다. 전국의 탑을 찾아다니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을 찾았다. 송 작가의 렌즈에 탑들이 쌓이면서 송 작가는 탑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읽어나갈 수 있었다. 대칭의 구조를 통해 조형적 만다라를 볼 수 있었고, 그 만다라를 통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주 분황사 모전탑(첫줄 3번째), 창녕술정리 동삼층석탑(셋째줄 2번째) 등 송석곤 작가가 드론을 이용해 찍은 탑사진.

송 작가가 하늘에서 찍은 탑들은 3차원적인 공간이 카메라를 통해서 평면화 되고, 평면화 된 공간은 다시 비례와 균형의 조형 요소와 함께 영적인 상황들을 연출한다. 땅끝마을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탑에서 작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고, 하늘에서 세상과 소통했다. 탑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서 공(空)과 색(色)이 순환하는 물질계의 영성을 암시하기도 하고, 대자연 앞에 굳건히 서있는 영원성을 보여준다. 추상적인 조형성으로 기록된 사진 속 탑들은 영성의 시간 속에서 작가가 찾아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탑에서 본 탑'인 것이다.

송석곤 사진가는 대구대학교를 졸업했고, 경성대학교 사진대학원을 수료했다. 울산시의회에서 2006 태화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1983년 신인전을 시작으로 2006년 울산 이야기, 2017년 동해아트페어, 2018년 평창올림픽단체전 등 1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리고 통도사성보박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팔레드 등에서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화를 벗어난 한국화

임무상 기획초대전 제주 현인갤러리 10.3~20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 展


임무상 作, 린(隣)8-Korean Nocturne 42x33.5㎝ 한지, 먹, 천연혼합채색.

공동체 정신과 한국적 곡선 미학으로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임무상 화가의 기획초대전이 열린다.

제주도 현인갤러리는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획초대전 임무상의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 展을 개최한다.

임 화백 그림의 테마는 '곡선미학'이다. 위대한 단순미로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임 화백의 '곡선'은 2005년 임 화백이 금강산을 다녀온 후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조형언어인 곡선화법으로 금강산을 그림으로써 새로운 산의 형상을 구현해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임 화백이 금강산 작화 이후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법에서 일정 부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자연과 합일하여 유희하고 관조하면서 재해석한 그림들이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자연스러움에 접근해 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열어놓은 '한국화'에서 또 한 번 벗어난 한국화다.

임 화백의 곡선은 작가 자신이 추구하는 '린(隣)'이라는 대전제를 품은 곡선으로, 임우상의 고유한 알파벳이다. 이 시대의 화두인 '친환경', '더불어 살기'에 부합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임무상의 '린(隣)'은 수묵의 모더니즘 추구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공동체 정신과 한국적 곡선미학이 접목된 새로운 형상화 작업을 시도한 한국성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린(隣)은 원융한 것이어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 됨을 뜻하며 공동체 문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임 화백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직선보다는 곡선의 쓰임 쪽에 기울어 있다고 보고 그 곡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심었다.

임무상 화백은 2013년 7월 파리 중심부에 있는 갤러리 셀렉티브 아트(Selective Art) 초대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전속작가 계약을 맺었다. 이어 이태리 파도바 아바노 지역 갤러리 아트시마(ARTissima) 화랑에 초대 받아 유럽에서 황금기간인 그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순회전시를 한 바 있다. 현재 스위스 GSTAAD Gallery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삼국유사〉로 읽는 새로운 신라사

국립경주박물관 강좌 10.11~12.13

〈삼국유사〉를 통해 신라의 역사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14:00~16:00) 세미나실에서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신라학 강좌'를 진행한다.

'신라학 강좌'는 신라 천년 역사의 의미를 돌아보고,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성인 대상 전문 강좌이다. 지난 4월부터 '신라의 불교미술과 고고학의 최신 성과', 그리고 '석굴암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26강좌를 운영하여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11일부터는 경북대학교 주보돈 명예교수를 초청, '〈삼국유사〉로 읽는 새로운 신라사'라는 주제로 10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고대사 복원의 주축을 이루는 양대 기본 사서(史書)이나 〈삼국사기〉와 비교하면 설화적 성격의 내용이 많아 논란의 부분도 있어왔다. 그러나 논란거리가 많은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소재가 풍부하다는 점이 〈삼국유사〉의 매력이다. 그 만큼 이번 강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고대사의 권위자인 주보돈 교수는 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과 계명대학교 대학원(박사)에서 한국고대사를 전공했다.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한국목간학회 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1998), 〈금석문과 신라사〉(2002), 〈임나일본부설,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2012), 〈가야사 새로 읽기〉(2017),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2018), 〈한국고대사의 기본 사료〉(2018) 등이 있다.

참가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 '교육 · 행사'에서 접수할 수 있고,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박재완 기자

